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정책수혜 맞물리며 황제주 등극

장중 103만5000원까지 치솟아
방산·선박 호조… 우주사업까지 확장
李 대통령 ‘방산강국’ 정책도 힘보태
주주가치 제고방안도 적극 제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31일 장중 100만원을 찍었다. 작년 같은 시기 28만8000원이었는데, 1년 만에 주가가 세배 넘게 뛰었다. 국내 유가증권에서 1주당 가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다 높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양식품, 태광산업, 효성중공업 뿐이다. 가파른 실적 성장과 이재명(국민주권)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까지 맞물리며 이른바 ‘황제주’ 자리를 꿰찬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4% 오른 9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103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썼다.

시장에서는 실적 성장과 주주환원 정책, 정책 수혜 기대감이 투자자를 불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서 전시한 K9 자주포.

/한화

모았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방산 및 선박 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7% 증가한 6조2735억원, 영업이익은 156.3% 급증한 8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권가 평균 예상치를 약 20% 웃도는 수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과 위성, 발사체, 지상무기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며, 방산 전문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의 시너지, 누리호·고체 발사체 등 우주 사업까지 성장성이 확장되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럽 지역 재무장 수요 증가에 따라 K9 자주포와 천무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도 주가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을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R&D 세액감면, 소재·부품 국산화, 차세대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공시를 통해 향후 4년간 11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 연간 3500원 이상 현금배당,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956억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경쟁사에 비해 주가도 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6년 예상 주가수익 비율(PER)은 19배 수준으로, 유럽 방산업체 평균(33배)이나 국내 경쟁사 평균(27배)보다 낮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 정책 수혜, 주주환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104만 6824원이다. 목표주가 중 가장 높은 수치는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130만원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독일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방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업체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재무장으로 인한 글로벌 무기 공급 부족 심화로 중동, 인도 등 국가들이 ‘K방산’에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했다. BoA는 이를 근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를 기존 95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상향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과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다수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만큼 해외 매출 인식이 이어지면서 2025년과 2026년 지상 방산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4%, 18.6%씩 증가할 것”이라며 방산 업종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7% 돌파

금감원 ‘지난해 연금저축 운용현황’
전체 연간수익률 3.7%… 0.9% ↓
연금저축펀드 적립액 10.8兆 늘어
고소득자일수록 가입률 높아

작년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7%를 넘었다. 펀드 적립액은 11조원 이상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서 작년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이 전년 4.6% 대비 0.9% 하락해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보험 2.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펀드 7.6% 순이었다.

상품별 수익률 차이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인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퇴직연금 IRP(5.9%)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적배당 상품에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IRP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보험 115조 5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4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으로, 연금저축펀드는 2년 연속 30%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연금저축펀드의 적립액 증가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을 넘어섰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000억원 증가했고, 연금저축신탁은 적립금이 7000억원 감소했다.

판매사별로는 보험사 115조6000억원, 금융투자회사 35조9000억원, 은행 19조1000억원, 공제기관 8조원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회사가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43.7%) 증가한 반면, 보험사는 2000억원(0.1%) 증가에 그쳤고 은행은

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가입자는 764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특히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연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8만8000명)나 늘어났다.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연 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불과한 한편, 4000만~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다.

연금저축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연 295만원으로 전년(연 297만원)보다 2만원 줄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 낮은 수수료 비용, 한도 없는 자산운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이를 활용한 적극적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머니마켓액티브’, 순자산 7兆 돌파

올해 자금 유입 3.1兆… 증가폭 1위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머니마켓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머니마켓액티브’가 순자산 7조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는 올해 3조1214억원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연초 이후 국내 ETF 중 순자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상장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 금액은 4264억원에 달해 국내 파킹형 ETF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상품은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

(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일반 MMF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면서도 운용 규제가 비교적 덜해 더 유연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높은 신용등급의 자산 위주로 구성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2.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연환산 수익률 3.43%를 기록하며 일반 MMF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IBK투자증권, 환경·에너지 시장 활성화 나서

NH선물과 비즈니스 활성화 협력

IBK투자증권은 지난 30일 NH선물과 ‘환경·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는 ▲기업의 환경·에너지 상품 투자 및 헤지구조 자문 ▲기업의 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기술자문 및 투자주선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에너지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적의 솔루션으로 헤지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IBK투자증권은 유럽연합(EU) 탄소 배출권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중개 거래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왔다. NH선물은 파생상품 전문 중개회사로, 고객별 맞춤 투자 및 헤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저유황 선박유 등



30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에서 박태동 IBK투자증권 S&T부장(오른쪽)과 이수석 NH선물 부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친환경 원자재 기반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박태동 IBK투자증권 S&T부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석 NH선물 부사장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관희 기자

‘넥스트 차이나’ 실종… 인도증시 고평가 부담 지속

최근 한 달간 수익률 -1.44%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주목받던 인도펀드가 주요국 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인도펀드 수익률은 -1.44%로 주요국 펀드 중 유일하게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14.28%), 중

국(7.86%), 북미(6.26%), 일본(3.82%) 등 주요 국가 펀드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익률 부진으로 인해 자금 유출도 이어졌다. 인도펀드 설정액은 전날 기준 1조7309억원으로, 연초 이후 2011억원이 빠져나갔다.

국가별 펀드 중 설정액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중국주식형 펀드는 4021억원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화했

다. 로이터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인도 주식을 약 20억 달러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 증시에 대한 고평가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PER)은 약 22배 수준으로 신흥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에 더해, 미국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원관희 기자